

칼럼



김 윤 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통일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는 빛고을 광주

영하의 추운 날씨가 매섭게 옷...

서울 용산역에서 8시 23분 출발...

통일교육이 끝나고 둘러본 세계...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광주시...

용산역에서 10초가 늦어서 8시...

함경북도 회령 출신 북한이탈주...

민 김안나씨의 아름다운 아코디온...

나의 늦은 도착으로 광주교육대...

하루 전, 오늘 행사의 주최자인...

내일 참석 인원이 몇 명쯤 되겠...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 코로...

60여 명은 족히 될 법 했다. 나...

나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로...

김 회장의 비범한 헌신과 참석...

우리나라 통일의 가장 큰 문제...

서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자(之)...

통일로 가는 길에서 뒷걸음질...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적인...

서독은 1970년 진보적인 사회...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20년...

명한 30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

고립 무원(無援)의 처지가 된 북...

그 때부터 미국과 한국에 평화...

같은(等)이 없는(無) 최고의 산...

이런 광주 방문을 통해서 개인...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는...

막강한 핵보유국 러시아와 수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자녀가 보낸 이런 문자 믿지 마세요'

최근 발생한 신종 보이스 피싱 '메...

자녀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문자...

비중을 차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

자녀,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록 유도한다.

구글기프트카드의 경우 누구나 편...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이번 해 9월

까지 메시지 피싱 피해금액은 297억...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

김시야/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순경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